

2015년 3월 22일 주일설교
와싱턴 한인교회 김영봉 목사

존 스토트에게 배우는 제자도 (7)
“그래도 괜찮아” (It Is Okay)
마태복음 26:36-38

오늘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제자도>의 일곱번째 주제인 ‘의존 (dependence)’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께 그리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말을 뒤집으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 약해질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 이유가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2:18)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혼은 인간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익한 제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2장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창 2:25). 우리는 죄로 인해 깨어지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 즉 서로 의지하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서로에게 드러내 놓을 수 있었던 상태를 발견합니다.

그러던 중 사탄이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창 3:4-5). 사탄은 하나님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상태를 벗어나라고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삶을 거부하고 독립을 택하여 죄를 범하자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였고,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자신을 가리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가리고 있던 모든 가면을 벗고 서로의 부끄러움과 상처를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점을 강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두꺼운 가면을 쓰고 믿음의 행위로서 더 철저히 자신을 위장하도록 오도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다는 생각해서 안 그런척, 강한 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죄의 유산을 받은 인류 모두의 문제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앞으로 자신을 가린 것처럼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가리고 강한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도움 받는 것이 죽기보다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로 자라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이 깨어지고 망가지는 경험은 믿음이 자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막 8:34)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옛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 아플 때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것, 울어야 할 때 무너져 심하게 우는 것, 자신의 부끄러운 약점을 내어 놓는 것,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 다른 사람의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는 것은 자아를 무너뜨리는 데 아주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올리브 산에서 체포되기 전에 주님은 세명의 제자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기도로서 자신을 준비할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늘 가까이 두고 의지했던 세 제자와 함께 적당한 곳에 도착하자 그분은 갑자기 “근신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마 26:37)고 마태는 전합니다. 어쩌면 우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세 제자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26:38). 그 누구 앞에서도 혹은 그 어떤 일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마지막 순간에 세 제자 앞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다음, 체포되니 예수님은 밤새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마침내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 갑니다. 여러 번 넘어지셨고 마침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거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낮선 사내에게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도움을 청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분은 가면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가리지 않았습니.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셨고 또한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진정으로 강하셨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약해지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약해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면과 위장을 벗어 놓고 진정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장 도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와 어두움을 대면하게 하는 믿음,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여 치유와 회복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게 하는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후반부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이 기간동안 세 제자 앞에서 당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기도를 부탁하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또한 당신의 남은 힘을 다 끌어 모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지만,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사양하지 않으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묵상을 통해 약해짐으로 진실로 강해지는 길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회자료>

존 스토틀에게 배우는 제자도 (7)
“그래도 괜찮아” (It Is Okay) 마태복음 26:36-38

1.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150 장(통 135)
2.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3. 마태복음 26 장 전체를 읽습니다. 예수님의 연약함을 생각해 봅니다. (10 분)
4. 말씀의 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5. 말씀의 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2) 원죄는 자신을 가리는(위장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자신을 가리고 사는 점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습니까?
 - 3) 설교에서 다룬 세 가지 경향(연약해짐을 두려워하는 경향, 자신의 어둠을 숨기는 경향, 착하게 살려는 경향)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어떤 경향이 가장 강합니까?
 - 4) 믿음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변화를 위해 당신에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6. 기도
 - 1) 진정한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2) 연약함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7.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8.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457 장(통 510)
9.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